

제2외국어/한문 영역[한문 I]

제 5 교시

성명

수험번호

2

1

1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학생: 선생님,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인가요?

교사: 응, 조선 후기 화가 이인문의 작품이야.

학생: 쏟아지는 계곡물이 시원해 보여요. 소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감 있게 느껴지고요.

교사: 잘 보았구나. 이 그림은 소나무 아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그렸기 때문에 '松下談(㉠)圖'라고 해.

- ① 笑 ② 情 ③ 寒 ④ 川 ⑤ 素

2. 두 자를 <보기>와 같이 합하여 하나의 한자로 만들었을 때, ㉠과 ㉡의 음으로 옳은 것은? [1점]

< 보 기 >

田 + 心 = 思

○ 木 + 且 = (㉠) ○ 與 + 手 = (㉡)

- | | | | |
|-----|---|-----|---|
| ㉠ | ㉡ | ㉠ | ㉡ |
| ① 사 | 거 | ② 차 | 거 |
| ③ 사 | 여 | ④ 차 | 여 |
| ⑤ 사 | 흥 | | |

3.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1점]

< 보 기 >

ㄱ. 遠 - 近 ㄴ. 始 - 終
ㄷ. 休 - 息 ㄹ. 但 - 只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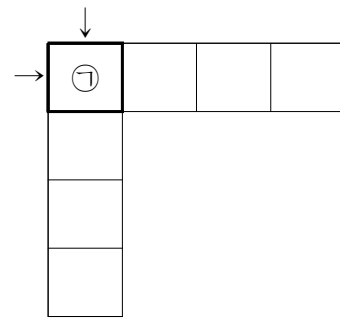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④ ㄴ, ㄷ ⑤ ㄷ, ㄹ

4. 대화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? [1점]



- ① 物 ② 雨 ③ 泉 ④ 洋 ⑤ 淺

5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【가로 열쇠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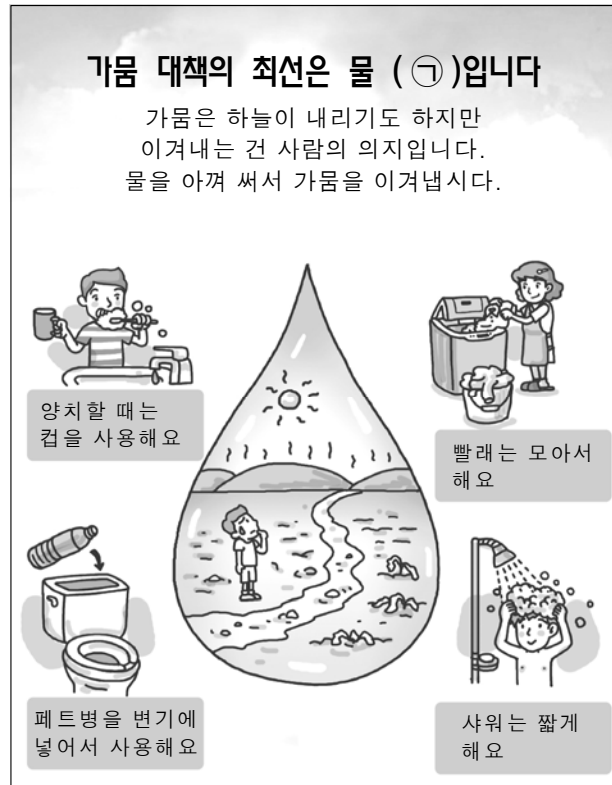
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님.

【세로 열쇠】

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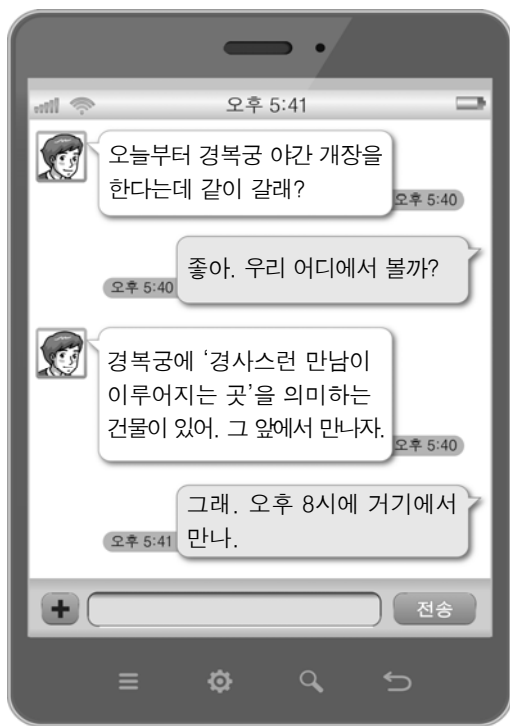
- ① 加 ② 錦 ③ 好 ④ 路 ⑤ 夜

6.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- ① 淨化 ② 豫防 ③ 讓步 ④ 寄附 ⑤ 節約

7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장소는? [1점]



- ① 資善堂 ② 勤政殿 ③ 乾清宮
④ 慶會樓 ⑤ 健順閣

8. 시의 내용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? [1점]

아름다운 시를 어찌 나쁘다 하랴!
이 또한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네.
그러나 화려함만을 좇아 그 알맹이를 버리니
이로 인해 시의 참뜻을 잃게 되는구나.
근래에 많은 시인들이
시의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
겉으로만 쓸데없이 울긋불긋 꾸미며
한때의 유행만을 찾고 있구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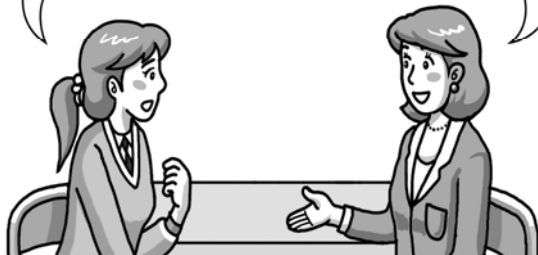
-이규보-

- ① 外華內貧 ② 刻舟求劍 ③ 無爲徒食
④ 衆口難防 ⑤ 龍頭蛇尾

9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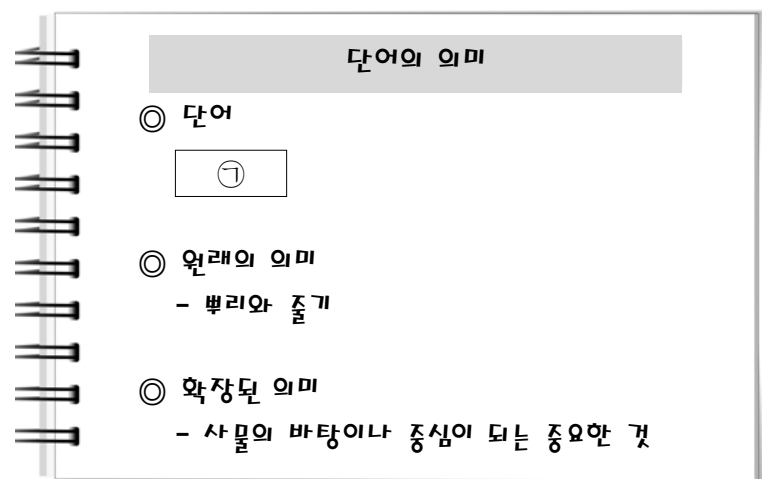
선생님, 친구가 잘못해서 서로 다투었는데, 그 친구가 먼저 화해 하려고 말하지 않아서 섭섭해요.

‘㉠’(이)란 말도 있잖아. 그러니까, 서운하더라도 먼저 따뜻하게 품어주려무나.



- ① 吹之恐飛, 執之恐陷. ② 予所憎兒, 先抱之懷.
③ 三歲之習, 至于八十. ④ 我腹既飽, 不察奴飢.
⑤ 窮人之事, 飢亦破鼻.

10. 공책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

- ① 根幹 ② 枝葉 ③ 本質 ④ 核心 ⑤ 要點

11.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성어는?

兒在負, 三年搜.

-『열상방언』-

- ① 金科玉條 ② 事必歸正 ③ 風前燈火
④ 燈下不明 ⑤ 三省吾身

12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

- ① 招 ② 借 ③ 送 ④ 柔 ⑤ 壽

13. 글의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恥不知而不問, 終於不知而已, 以爲不知而必求之, 終能知之矣.

-『백수선생문집』-

- ① 배운 것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.
② 가르쳐 봐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.
③ 아는 것이 많다고 겉으로 뽐내서는 안 된다.
④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.
⑤ 남이 나를 몰라 주더라도 걱정해서는 안 된다.

[14~1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君者舟也, 庶人者水也. 水則載舟, 水則覆舟.
-『순자』-
(나) 孟子曰: “民爲貴, 社稷次之, 君爲(㉠). 是故, 得乎丘民, 而爲天子, 得乎天子, 爲(㉡)諸侯.”
* 稷(직): 곡식 신 -『맹자』-

14. (가)의 내용을 바탕으로 (나)를 이해할 때, ㉠에 알맞은 것은?

- ① 確 ② 哲 ③ 輕 ④ 譽 ⑤ 裕

15. ㉡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? [1점]

- ① 장후 ② 정조 ③ 제후 ④ 제례 ⑤ 지조

[16~18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上曰: <중략> “太宗實錄, 春秋館今已(㉠)畢撰. (㉡)予欲見之, 何如?” <중략> 申檣等曰: “今所撰實錄, (㉢)皆載嘉言善政, 無所更改, 況我殿下其有(㉣)更改之乎? 殿下若(㉤)見之, 則(㉥)後世之主, 必效而更改之, (㉦)史官亦疑君上之見, 必不盡記其事, 何以傳信於將來?” 上曰: “然.”
* 撰(찬): 짓다 * 申檣(신장): 사람 이름 * 嘉(가): 아름답다
-『조선왕조실록』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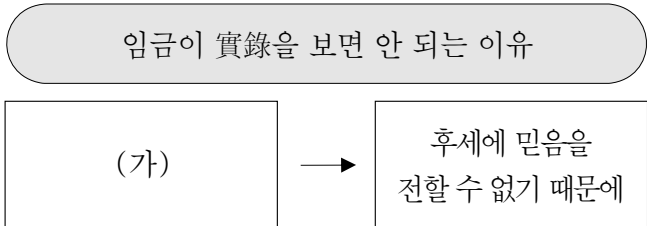
16. ㉠~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의 음은 ‘必’와/과 같다.
② ㉡은 의미상 ‘我’와 바꾸어 쓸 수 있다.
③ ㉢은 ‘모두’로 풀이한다.
④ ㉣의 주체는 ‘殿下’이다.
⑤ ㉥은 ‘謁見’의 ‘見’와/과 음이 같다.

17. ㉥와 짜임이 같은 것은? [1점]

- ① 日出 ② 勝負 ③ 睡眠 ④ 修身 ⑤ 吉夢

18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㉦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, (가)에 알맞은 것은?



- ① 사관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서
② 사관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아서
③ 사관이 보여준 기록을 임금이 분실해서
④ 임금이 백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
⑤ 임금이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

[19~2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衣服有污, 一洗而可除, 時習一污, 百濯而不去. 蓋俗由習成, 漸染則(㉠)易, 變革則難.
-『지봉집』-

19. ㉠과 음이 같은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〈 보 기 〉	
ㄱ. 容易	ㄴ. 貿易
ㄷ. 交易	ㄹ. 平易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ㄷ
④ ㄴ, ㄹ ⑤ ㄷ, ㄹ

20.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[21~2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虎求百獸而食之, 得狐. 狐曰: “子無敢食我也, 天帝使我長百獸, 今子食我, 是, 逆天帝命也. 子以我爲不信, (㉠)吾爲子先行, 子隨我後, 觀百獸之見我而敢不走乎.” 虎以爲然, 故, 遂與之行, 獸見之, 皆走. (㉡)
* 狐(호): 여우 -『전국책』-

21. ㉠의 풀이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- ① 吾 → 爲 → 子 → 先 → 行
② 吾 → 子 → 爲 → 先 → 行
③ 吾 → 子 → 先 → 行 → 爲
④ 子 → 吾 → 爲 → 先 → 行
⑤ 子 → 吾 → 爲 → 行 → 先

22.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,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은?

虎不知獸畏己而走也, 以爲畏狐也.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[23 ~ 2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許魯齋, 暑中, 過河陽, 喝甚, 道有梨, 衆爭取啖, 而獨㉠危坐, 或言: “世亂, 此無主.” 曰: “㉡梨無主, 吾心獨無主乎?”

* 許魯齋(허노재): 사람 이름 * 喝(갈): 더위 먹다 * 啖(담): 먹다
-『사소절』-

23. ㉠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- ① 正 ② 歡 ③ 競 ④ 連 ⑤ 侍

24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㉡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?

- 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협력하겠다.
② 세상이 어지럽다고 몸을 숨기지 않겠다.
③ 나의 양심을 속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.
④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겠다.
⑤ 남과 다른 행동으로 돋보이려 하지 않겠다.

[25 ~ 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其後, 更取美貌男子, 粧飾之, ㉠名花郎以奉之, 徒衆雲㉡集. 或相磨以道義, 或相悅以歌㉢樂, 遊娛山水, 無遠不至. 因此, 知其人邪正, 擇其善者, 薦之㉣於朝. 故, 金大問花郎世記曰: “賢佐忠臣, ㉤從此而秀, 良將勇㉥卒, 由是而生.”

-『삼국사기』-

25. ㉠ ~ ㉥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이름 짓다 ② ㉡: 모이다 ③ ㉢: 음악
④ ㉣: 복종하다 ⑤ ㉥: 병사

26. 의미상 ㉣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?

- ① 已 ② 于 ③ 而 ④ 乃 ⑤ 又

27.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〈 보 기 〉

- ㄱ. 아름다운 용모의 남자를 뽑아 화랑으로 받들었다.
ㄴ. 화랑은 도덕과 의리로써 함께 연마하였다.
ㄷ. 화랑은 무예를 겨루는 대회를 자주 열었다.
ㄹ. 화랑 중에서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왔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ㄷ, ㄹ
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[28 ~ 30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請㉠看千石鐘, ㉡非大扣無聲.
爭似頭流山, 天鳴㉢猶不鳴.

* 扣(구): 두드리다
-조식, 「제덕산계정주(題德山溪亭柱)」-

(나) 江㉣碧鳥逾白, 山青花欲然,
今春看又㉤過, ㉦何日是歸年?

* 逾(유): 더욱
-두보, 「절구(絶句)」-

28. ㉠ ~ ㉦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보다 ② ㉡: 아니다 ③ ㉢: 같다
④ ㉣: 푸르다 ⑤ ㉤: 지나가다

29.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〈 보 기 〉

- ㄱ. (가)의 제1구와 제2구는 ‘대우(對偶)’를 이루고 있다.
ㄴ. (가)의 제3구는 ‘爭似 / 頭流山’으로 띄어 읽는다.
ㄷ. (나)의 운자(韻字)는 ‘然’, ‘年’이다.
ㄹ. (나)의 제3구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ㄷ
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30. (나)의 내용으로 보아 ㉦에 담긴 시적 화자의 정서로 알맞은 것은?

- ①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연민.
②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한 감탄.
③ 약속을 하고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.
④ 세속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.
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.

※ 확인 사항

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